



2023.12.19. 화. 오후 3시30분

전쟁반대 * 한반도평화를 위한 집중기도회

VENUE	장소	CONTACT	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삼각지역 12번 출구)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남기평 간사	010-구공구칠-7647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N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2023년 12월 19일(화) 오후 3시 30분, 전쟁기념관 정문

전쟁반대 한반도평화를 위한 집중 기도회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동북아시아, 한반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인도. **황현주 목사**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

반주자. **박형순 목사** (평화교회연구소 소장)

[예배의 부름]

인도자 "야훼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민간인의 희생이 멈출지모르는 팔레스타인의 울음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땅에 함께해주시고,
대결구도 격화되고 대립의 선이 명확해지는 동북아시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전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 평강의 하나님의 손길이
달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찬송] 다같이 * 입례송 (홍성현 사, 곡)

Em7 Asus4 Dadd9 Em7 Asus4 Dadd9

이제 우리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 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 리 여 기 모 여 으 니 우 리 가 운 데 로 오 소 서 절 망
손 길 과 웃 음 과 위 로 를 당 신 이 함 께 하 심 느 끼 니 이 제

G Asus4 A F#m7 B7 Em7 Em7/A Dadd9 D

과 고통 속 에 있던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이 시간 당 신 께 다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 어 디 있 든 지 무 슨 일 을 당 하 든 지 더 는 혼 자 가 아 님 을 깨 달 게 하 소 서

과 고통 속 에 있던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당 신 께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 어 디 있 든 지 무 슨 일 을 당 하 든 지 함 께 함 을 깨 달 게 하 소 서

[중보기도] 말은이

+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 최수산나 국장 (한국YWCA연합회 시민사회국 & NCCK화통위 서기)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 가자지구에서 6000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최소 1,800명이 잔해 속에서 실종 상태이고 수천 명이 다쳤으며 참혹한 환경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알 시파 병원에서는 연료와 의료품 부족으로 갓 난 아이 30여명이 인큐베이터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집트로 대피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고 다친 아이들, 잔해 속에 갇혀 병든 아이들, 몹시도 고통스런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아이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주님, 너무나 슬프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곱고 빛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무분별한 폭력의 늪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애통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임이니라.”(사 66:13)

2023 대림절 평화기도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문 중
18일(월) 전쟁반대집중기도 기도문

+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 강수빈 전도사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상임연구원)

주님, 우리는 찢어지고 터진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주님,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평화의 왕이신 당신 없이는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당신을 향한 전쟁임을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향해 총을 겨누는 자는 곧 주님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이기 때문이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정의를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화가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끝나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소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좁고 이기적이 되었는지 당신은 잘 알고 계시나이다.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예외나 차별 없이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겐 크고 넓은 마음이 필요하나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연민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소서. 아멘!

19일(화), 전쟁반대집중기도 기도문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종훈 사제 (한국정교회)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 하성웅 목사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총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주님으로 부터 왔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구별 사람들이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일년 중 가장 비합리적이고 신비스러운 계절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가 위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데, 당신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고 아기의 몸으로 저희들에게 오신다구요?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신비입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마리아가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인”다고 노래했으니,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신비입니까?

신비를 가리키는 별이 깜깜한 하늘에 나타나, 하늘의 움직임을 살피는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별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에게 그들을 인도했다 하니,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신비입니까? 아기에게 예물을 바치고 경배했다는 동방박사들처럼 동방에 사는 저희들도 이 아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를 드리러 나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신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비합리적인 신비 안에 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우리는 안전하고 싶은데 믿을 이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각축장이 되어버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만 골몰합니다. 별거벗은 아기를 경배하기는 커녕 핵으로 무장한 군사주의를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여, 시기와 분쟁을 없애고 평화를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여,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을지라도 저희가 눈을 들어 깜깜한 하늘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따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당신을 주님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동아시아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연약한 아기로 오시는 하느님, 세상이 비웃더라도 주님의 비합리적인 신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20일(수), 전쟁반대집중기도 기도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이은주 목사 (PCUSA, 화통전문위원)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 전남병 목사** (고난함께 사무총장, 화통위 전문위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는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과는 너무나 상반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는 전쟁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긴 세월 지속되는 한반도 분단의 깊은 상처는 아물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니이까? 언제까지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려 합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 안의 완악함을 먼저 회개합니다. 분단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한 형제 자매임을 망각할 때가 많았고, 서로를 악마화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남한 사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안에서도 이념으로 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구분하고 미워하며, 때로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분단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먼저 남한 사회와 교회 안의 상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화평의 하나님, 강대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남북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안의 위협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반도 밖의 분단 또한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 속,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대결 구도로 휘말려가는 것을 보며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분명 기억합니다. 주께서는 5년 전, 흑암과 혼돈의 한반도 상황 속에서 놀라운 화해의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이후 상황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자녀들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불씨가 되어나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를 더욱 열리는 것이 아니라 녹여버리게 하소서. 냉전 확산의 중심이던 한반도가 신냉전 해체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하소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 하나님, 그동안 남북 화해를 위한 수많은 기도와 눈물, 땀과 아픔을 주께서는 모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한 방울도 낭비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평화를 향한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새 힘 얻고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도우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일(목) 전쟁반대집중기도 기도문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
김종대 대표(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화통위 전문위원)

+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 박정범 목사** (기장 평화공동체본부 사무국장)

생명의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가 점점 폭력과 분쟁, 전쟁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갈등과 부정의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무지로 이들의 아픔에 무관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밝혀주소서.

평화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몸소 가르쳤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이웃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치유되고, 용서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서로 무기를 겨누는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줄안과 고통, 기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주소서.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소망의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열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의, 화해, 일치의 순례 속에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소망의 씨앗이 점점 자라 온 땅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22일(금) 전쟁반대집중기도 기도문 /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 김서영 목사 (WCC중앙위원)

[경배 찬송] 다같이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 412장)

보통으로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평화는 깊이 묻히인보배로 다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복을받음이 라
4. 이 땅위의 험한길 가는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 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고이싸 네
나의 보화를캐내어 가져갈자그 아무도없으리 라
내가 주야로주님과 함께있어내 영혼이편히쉬 네
우리 모두다예수를 친구삼아참 평화를누리겠 네

후렴

평 화 평 화로다 하늘 위 에서 내려 오네

그 사랑의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덮으 소 서

[보고&현장증언] * **나해집 목사** (한국교회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본부장)
- 한반도평화 미국옹호활동 보고

* **이재희** 파주 접경지역 주민 (파주 거례하나&615고양 파주본부 집행위원장)
- DMZ&접경지역, 지역민 상황나눔

[평화를 위한 기도] **정대일 사회선교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평화를 위한 찬송] **박은진 집사** (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성서 읽기] 이사야 11장 1~9절 (공동번역) * **사회자**

1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2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3 그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걸만 보고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4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흠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몽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 5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6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7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8 젓먹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젓뎀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 없이 손을 넣으리라. 9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말씀송] **다같이** *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지 치 지 않 - 게 마 시고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주님 나 라 이 루 소 서 -

[말씀 나눔] **송병구 목사** (NCCK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색동교회 담임)

" 오소서, 평화의 나라 "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공동번역)

[함께 부르는 노래]

116

평화가 있기를

류형선

류형선



1. 평화가 있기를 - 평화가 있기를 -
2. 너희들 가운데 - 깃 - 든 평 화 는 -
3. 해 뜨는 곳 에 서 - 저 무는 곳 까 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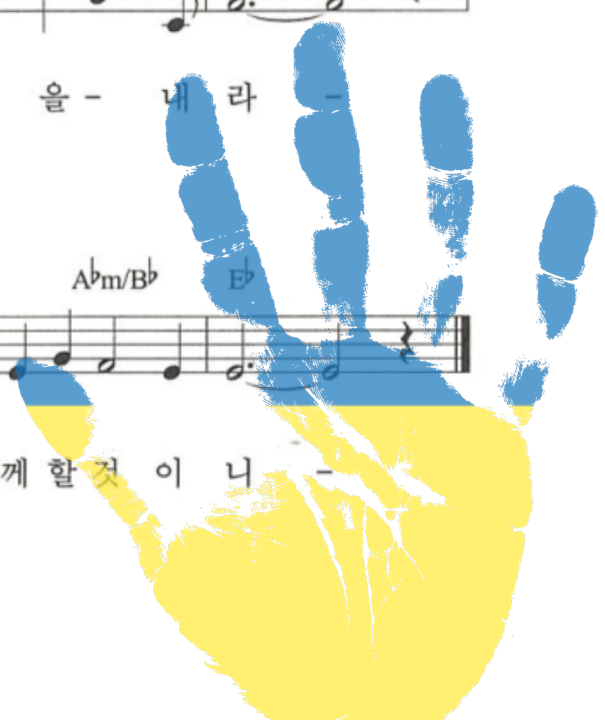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깃들 어 있 기 를 -
죽 - 음의 능력 보 - 다도 크 - 고 깊 으 니 -
너희안에 깃든 참평화를 널 - 리 전 하 라 -



힘 을 - 내 라 - 힘 을 - 내 라 -



끝 날 까지 내 평 - 화가 함 께 할 것 이 니 -





[평화의 인사] 김종생 목사 (NCCK 총무)

[축도] 한기양 목사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광고] 말은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of Korean Peninsula

일시: 2024년 9월 20 ~ 22일 (토~주일), 23일(월) 비공식 EFK회의
 *22일은 NCCK 100주년 기념예배

NCCK 국제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알립니다]

*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한국YWCA연합회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도회는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18일부터 22일까지 <전쟁반대 긴급기도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 동북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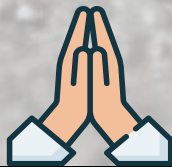
* 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내년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에 701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종전평화캠페인
2021-2023년 보고 (영상)



한국교회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 보고



집중기도주간 기도문 내려
받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1924-2024